

## 플라톤과 數學(I)

김 남 두

### I

플라톤이 수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 자신의 문헌이나 後代의 傳言 등을 통해 여러가지로 확인된다. 그의 많은 저술들이 數學的 內容을 담은例를 제시하고 있거나, 수학 자체를 대화주제로 삼고 있으며,當時의 數學者가 직접 대화자로 등장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국가」篇에서 플라톤은 그가 그런 가장 뛰어난 국가의 統治者가 될 사람들이 20 歲에서 30 歲에 이르기까지 10 年에 걸친 기간동안 數學과 그 연관과목의 훈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아카데미 입구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유클리드의 기하학교본을 주석했던 고대말기의 數學者 프로클로스의 말에 따르면 많은 數學者들이 아카데미에서 수학에 관련된 제 문제의 공동적 탐구를 행했으며,<sup>1)</sup> 더 나아가 古代數學에서의 分析的 方法(Method of Analysis)은 바로 아카데미의 數學的 作業에서 始作되었다고 말한다.<sup>2)</sup> 테아이테토스, 유독소스, 메나이크모스, 레오나르도, 테우디오스 等, BC 4 世紀 當時의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研究作業을 행했던 것으로 알리지고 있으며,<sup>3)</sup> 유클리드 기하학의 체계가 많은 부분에 있어 이같은 아카데미에서의 수학연구활동에 의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고 주장된다.<sup>4)</sup>

아카데미에서의 數學 탐구활동이 어떤 方式으로 플라톤의 數學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逆으로 플라톤의 數學이 어떤 方式으로 數學의 體系形成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자세히 확정하는 일을 간단치 않은 일이 되겠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같은 상호영향이 매우 긴밀한 형태로 이루어 졌으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우리는 더 나아가, 위에 지적된 사실, 즉 플라톤 철학과 수학 사이의 밀접한 상호연관을 적절히 고려함이 없이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까지 이

- 1) F. Solmsen : 'Plato's Einfluss auf die mathematischen Methoden', in "Das Platonbild", 1969, 136 면 참조.
- 2) Solmsen : 같은 논문, 132 면 참조. . L. Heiberg : "Naturwissenschaften und Mathematik in Klassischen Altertum" Leipzig 1912, 28 면 참조
- 3) Solmsen : 같은 논문, 133 면 참조.
- 4) Solmsen은 플라톤의 dialectic이 유클리드 기하학의 체계화에 방법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의 자료에 근거 우리가 꺼꾸로 기하학의 체계화의 진전이 플라톤의 방법론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세움이 不可能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추측 이상을 넘어서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J. Mittstrass, "Rettung der Phantome" 45 면 이하 참조.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국가」篇의 VII卷과 VIII卷에서 플라톤이 數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두 부분에 관해서이다. 하나는 잘 알려진, 그리고 대단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線分의 比喻에서의 數學에 관한 언급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VIII卷에서 統治者의 教育프로그램을 논하면서 이루어지는 數學 및 연관학문분야의 언급에 관련된 한 부분이다. 이 두 부분은 어떤 點에서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VII卷의 線分의 比喻 가운데서 플라톤은 수학 및 수학자의 作業을 dialektike 및 Dialektiker의 작업과 비교하여 그 限界를 否定的으로 論하고 있는데 反해 VIII卷의 논의에서는 수학교육이 어떤 方式으로 dialektike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肯定的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兩句節에서 우리는 數學에 대한 플라톤의 直接적인 언급에 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數學이란 학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해 一端의 洞察을 얻고자 試圖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洞察은 그가 VII卷과 VIII卷에 걸쳐 아직 거칠고 모호하게 윤곽을 그려보고 있는 dialektike의 性格을 理解하는 데도 얼마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물론이다.

## II

앞서 잠시 언급된 대로 플라톤의 가장 뛰어난 국가에서 통치자로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20歲에서 30歲까지 10年간 수학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이 교육은 이후에 이어질 5年간의 dialektike 교육의豫備學(prooimion 531d)의 性格을 뺀다. 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화음학 등이 통치에 적합한 학과들로 특별히 교육되어야 하는 이유로 플라톤은 우선 이 과목들이 셈이나 陳地子축 기타 실제적인 일들에 有用하다는 사실을 든다. 그러나 이런 實用性보다도 그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이 과목들이 배우는 자의 靈魂을 生成의 세계로부터 실재의 세계에로 이끈다(mathema psyches holkon apo tou gignomenou, epi to on 521d)는 點이다. 그는 이 사실을 여러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生成世界에서 實在世界에로 영혼이 눈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수학관련 科目들이 어떤 點에서 이같은 靈魂의 轉回(periagoge 518d)를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이 두 물음들에 대해 VIII卷의 한 부분에서 우리는 플라톤 자신으로부터 비교적 소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sup>6)</sup>.

522以下에서 산술과목에 관해 논의하면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사람들이 이 과목을 올바르게 사용하면(chresthai orthos) 洞察(noesis)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산술이 實在에로 이끄는 學問이기 때문(heltiko onti … pros ousian 523a)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글라우콘의 요구에 힘닿는 대로 애써 보겠다고 대답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다음의 구분을 제시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사유로 하여금 속고하도록 만들고(parakalounta tes noesin eis episkepsin 523b), 어떤 것은 전연 그렇지 않다. 後者の 경우는 감각에 의해 충분히 관

5) 521d, 523a, 525b, 525c, 526e, 527 b 참조.

6) 523a - 525e 참조.

단되는 것들(hikanos hypo tes aistheseos krinomena 523b)이며, 전자는 이와 反對로 감각이 어떤 전전한 것도(hygies)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감각에 의해 충분히 파악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사유를 불러낼 필요가 없는 것의 예로 제시되는 것이 손가락이고, 감각에 의해 충분히 파악되지 뜻하고, 따라서 우리의 사유를 불러내는 것의 예로 크기(to megethos)의 경우가 제시된다. 손가락의 경우는 그것이 우리의 지각에 어떻게 주어지던, 즉 가운데 손가락이 전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건, 가늘던, 두툼하던, 희던 젊던 손가락으로 파악되고, 손가락에 반대되는 것(tounantion e daktylon)으로 우리의 영혼에 전해지지 않는다. 감각에 의해 충분히 파악되느냐 아니냐 하는 물음에 기준이 되는 것은 그것이 감각에 의해 우리의 영혼에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도 전달되느냐의 여부이다. 손가락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손가락을 항상 손가락으로 알려주며, 따라서 우리 영혼이 손가락이 도대체 무엇이냐(ti pot' esti daktylos)라는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다. 손가락과 달리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것의 예로 제시되는 크기의 경우를 통해 위의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우리가 점지 손가락을 중지와 비교할 때, 그것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phainetai), 엄지와 비교할 때 그것은 큰것으로 나타난다.同一한 것(to auto)이 크게도 나타나고 작게도 나타나는 경우, 즉 항상 그것에 반대되는 것(enantioma 524e)이 동시에 함께 보여지는 경우, 우리의 영혼은 궁지에 빠지게 되고(aporein), 큼이 무엇인지, 또한 작음이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ti oun pot' esti to mega au kai to smikron ; 524c).

이같은 이야기에서 감각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대화 중에 소크라테스 자신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감각의 不充分性 때문에 사유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멀리서 보여지거나, 음영속에서 보여지기<sup>7)</sup> 때문에 감각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대상 자체의 성격 때문에 지각이 제대로 그것을 밝혀주지 못하고 결함을 드러내는 경우이다. 앞서 제시된 크기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크다고 지칭된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비교될 때, 작은 것으로도 즉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 감각의 不充分함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된다. 이같은 경우 감각은 상반되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즉 큼이나 작음 어느 것도 제대로 해명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 이 주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크고 작음과 관련해서 감각이 문제되는 이유는, 같은 것이 크게도 나타나고 작게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때 어떤 관점에서 크다고 보여진 것이 또 다른 때 다른 관점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같이 때와 관점에 따라 크게도 나타나고 작게도 나타나는 사물을 큼이나 작음의 어느 것으로 同一視(identify)할 수 없다.<sup>8)</sup> 우리의 지각이 큼이나

7) 523b - c 참조. 원문에는 ‘음영화로 그려진 것’(eskiagraphemena)이다. 즉 문제대상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가 가까이 가서 보거나 밝은 데서 본다고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뜻한다.

8) Allen에 따라 이것은 다음과 같이도 설명될 수 있다. ① F와 G는 반대되는 (opposite) 것이요 서로 의미가 다르다. ② 그런데 어떤 것이 F면 또한 G이고, G면 F라고 보자. ③ 우리가 F의 의미를 F인 사물, G의 의미를 G인 사물이라고 한다면, ②에 의하여 F와 G는 같은 의미

작음 어느 것도 제대로 밝혀주지( deloun 523c ) 못한다함은 따라서 감각되는 것의 어떤 것도 큼이나 작음으로同一化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지시 가능성은 變化하고 섞여 있는 감각대상에서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 kekorismena 524c ) 하나로 존재하는 것에서 자유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이같은 대상을 플라톤은 가시적 감각대상( to horaton )에 대해 可知的 대상( to noeton )이라고 부른다.<sup>9)</sup>

자유를 촉발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한 후 플라톤은 산술이 다루는 ‘하나’나 모든 수들도 역시 감각세계의 可視的 對象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可知的 인 것으로 자유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數學과 그 인접학문들이 人間의 靈魂을 生成界에서 實在의 世界으로 이끄는 학문이라함은 따라서 이 학문들이 다루는 대상이 감각을 통해서는 분명히 파악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야 분명히 파악되는 대상들이요, 이 可知的 對象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끈다는 점에서 수학은 實在에로 우리를 이끄는 학문이라고 지칭된다.

여기서 가시적인 것과 가지적인 것을 구분함은 다음과 같은 점에 근거해 있다. 첫째, 可視的인 것들은 시간과 관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들이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시간과 관점에 따른 차이가 허용되기 때문이다.<sup>10)</sup> 이에 대해 크기 자체( auto to mega ), 또는 하나 자체( auto to hen )<sup>11)</sup> 등으로 표현되는 可知的 대상들은 이같은 시간과 관점에 따라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따라서 可變的이고 생성 소멸하는( to gignomenon kai apollumemon)것이 아니다. 둘째로, 可視的 대상들이 항상 어떤 특정한 관계 속에서 파악되는데 대해 可知的 대상들은 스스로 그 자체에서( auto kath' hauto )<sup>12)</sup> 파악된다고 한다. 따라서 可視的 대상들이 그때그때 단지 그렇게 보일( phainetai )<sup>13)</sup> 뿐인데 대해, 可知的 대상들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항상 그 자체로서 그려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다. VI권에서 플라톤은 이같은 可知的 대상들의 성격을 ‘항상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있는 것( to aei kata tauta hosautos echontos 484b )’이라고 표현하고

를 가진 것이 된다. ④ 그러나 ①에 의해 ③은 불가능하다. ⑤ 따라서 F나 G의 의미는 F이거나 G인 사물일 수 없고, 그 사물 이외의 독자적인 어떤 것이어야 한다. Allen: ‘The Argument from opposites in Republic V’ In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ed. by J. P. Anton & G. Kustas. Albany, 1972. Allen은 이에 근거 이데아의 독자적 존재가 증명되며 더 나아가 이데아는 오로지 반대되는 것들의 쌍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해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9) 524c. 이 표현은 이미 VI권 509d에 나와 있다. V권 478a와 VI권 510a에는 gnoston과 doxaston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10) 감각의 사물이 시간과 관점에 따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곧 이 세계에서 모순율이 저촉됨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Scheibe 와 Brentlinger 가 잘 밝혀주고 있다.

E. Scheibe, Über Relativbegriffe in der Philosophie Platons’, in Phronesis, 1967 참조.

J. Brentlinger, ‘Particulars in Plato’s Middle Dialogues’, 1972, 121면 참조.

11) 525d에는 수들 자체 ( auton ton arithmon )라는 표현도 나온다.

12) 524d.

13) 524d, 기타 여러곳.

있다. 항상 자신과 같고 다르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것은 항상 그것으로서同一觀될 수 있고 고정적인 지시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지계와 가시계의 구분, 그리고 실재와 생성소멸하는 세계의 구분은 「국가」편의 V 卷과 VI卷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 만큼 우리가 살펴본 VII卷에서 플라톤이 보이고자 한 점은 수학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실재으로 이끄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지적되었듯이 '하나' 나 수들과 같이 수학이 다루는 대상들이 가시적인 것들에서는 제대로 例化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밝혀지지 않는다는 點에서 수학의 그같은 성격이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 스스로가 503a에서 분명히 하고 있듯이 수학 자체가 바로 이 실재하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 것은 아니다. 단지 그 학문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경우 영혼을 실재으로 이끌 수 있을 뿐이며, 실재세계에 대한 탐구는 dialektike 의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

위에서 간략히 소개된 VII卷의 수학과 관련된 언급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사유를 축발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離分이다. 손가락과 같이 감각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된다고 분류된 사물들에는 아마도 우리가 일상경험에서 나무, 사람, 책상들과 같이 個物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대체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반대의 경우로 언급된 큼과 작음이 먼저의 경우와 다른 점은 그것들이 각각에서 반대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큼과 작음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例는 두꺼움과 얇음, 부드러움과 딱딱함, 무거움과 가벼움, 그리고 하나와 여럿 등이다. 사유를 축발하는 것들이 위에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관계개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는 사실로부터 Allen은 이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만 이데아가 존재하며 손가락이나 책상 등과 같은 第一部類에 속하는 사물들의 이데아는 말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하고 있다.<sup>14)</sup> 그에 따른다면 이데아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란 감각적 영역에서 그것의 엄밀한 지시물이 존재치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반대의 雙들은 어떤 것이 한 순간, 혹은 한 관점에서 반대의 한 쪽으로 다음 순간 혹은 다른 관점에서 반대의 다른 한 쪽으로 나타나므로 그 사물을 반대되는 雙의 어느 한 항과도 같은것으로 생각함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큼-작음, 무거움-가벼움등의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감각하는 사물들에서 큼 자체, 혹은 작음 자체로서 지시됨이 불가능하고 큼자체, 작음자체등이 可變的이고 생성소멸하는 가시계와 별도로 존재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사유를 축발하지 않는 손가락과 같은 경우는 각각에서 반대되는 것으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이데아의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Allen이 주장이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여러 難點들을 안고 있다. 사물의 모든 성질에서 예에 제시된 雙들처럼 반대되는 것들이 정확히 지시되기 어렵고-이것은 우선 수들의 경우에서 바로 지적될 수 있다<sup>15)</sup>- 그런 경우 이런 개념들에 대해 이데아가 존재치 않는

14) 509d, 註 8 참조.

15) Allen은 짹수-흘수의 雙으로 반대의 雙이 지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나 짹수임과 흘수임은 수의 성질이지 수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難點은 그대로 남는다.

Allen, 앞의 논문 168면 참조.

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또 첫번째 부류로 구분될 수 있을 침대나 의자에 대해 플라톤 자신이 「국가」편의 X卷에서 ide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Allen이 제시하는 반론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sup>16)</sup>

이같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큐—작음과 같은 반대의 雙들에 대해서만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Allen 같은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플라톤이 우리 의 사유를 축발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했다는 것 만은 일단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주목에 값하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플라톤 자신이 「국가」편 X卷<sup>17)</sup>에서 의자나 침대의 이데아를 말하고 「크라탈로스」편<sup>18)</sup>에서 織造機의 이데아를 말하기는 하나 플라톤의 전 대화편에서 이같은 個物들의 이데아에 관한 언급이 극히 적은 경우에 제한되고 예외적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sup>19)</sup> 이데아론을 비판적 논의의 주제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파르메니데스」篇에서도 파르메니데스가 인간, 불, 물 등에 대해서도 이데아가 존재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대화상대자 소크라테스는 그와 같은 사물들에도 이데아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종종 의심을 가져왔다고 대답한다.<sup>20)</sup> 자연종에 대한 이데아의 존재여부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유보를 우리가 바로 그같은 것들에 대한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플라톤이 생각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갈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그의 이데아론이 적절히 별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사람이나 기타 자연종들의 이데아가 그 자연종들을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썩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국가」편 VII卷의 부분이 전해주는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플라톤의 이데아가 별 무리없이 언급될 수 있는 경우는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세계에서 그것의 정확한 指示가 가능하지 않은 대상들이 된다. 수학의 대상들이 바로 이같은 것으로 区分되고, 수학이 이같은 대상들을 탐구하도록 한다는 플라톤의 언급에서 우리가 간취할 수 있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수학의 중요성이 그 추론의 정합성이나 엄격성 때문에라기 보다도 수학의 개념들이 이데아로 적절히 例化될 수 있다는 성질에서 구해지고 있다는 點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자체 삼각형 자체, 즉 하나나 삼각형의 이데아를 사람의 이데아나 손가락의 이데아 등을 이야기할 때 와는 달리 큰 어색함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만 하더라도 수학은 그의 이데아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고의 학문인 dialektike와 관련하여 뛰어난 자리를 차지함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겠다.

### III

앞서 논의된 수학교과목들은 dialektike의 예비학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이미 언급된 바

16) Allen, 같은곳 참조.

17) 596b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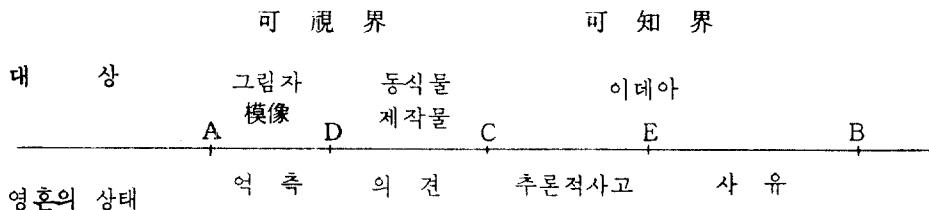
18) Crt. 398b.

19) 이데아가 이야기되는 대상들에 대해 A.Wedberg, "Plato's Philosophy of Mathematics" Stockholm, 1955. 33면과 143면 註 8 참조.

20) Prm, 130aff.

있다. 이 최고학으로서의 *dialektike*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좋음 자체”(auto to agathon)에 관한 맘이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통치자들이 통치자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좋음 자체에 대한 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편의 VII 卷 끝과 VII 卷 첫머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 비유, 즉 해의 비유, 선분의 비유, 동굴의 비유는 좋음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글라우콘의 물음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의 시도로서 주어진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이 비유들을 통해 좋음 자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단지 그것이 무엇에 비슷한지가 밝혀질 뿐이다.<sup>21)</sup>

이 세 비유 가운데 두번째로 제시되는 선분의 비유는 아마도 서양학문사에서 비교적 포괄적인 최초의 학문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단히 거칠고 암축되어 있으며 아직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오늘날도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플라톤 text의 부분중의 하나이다. 간단히 비유의 내용을 도표와 함께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도표에 주어진 대로 일정한 선분을 不等한 길이로 나누고,<sup>23)</sup> 나누어진 선분의 두 부분을 그 不等한 비율에 따라 다시 나눈다. 이를 통해 우리는 AC : CB = AD : DC = CE : EB의 관계로 분할된 선분을 얻게 된다.<sup>24)</sup> AC는 可視的인 것(to horaton)이고, CB는 사유될 수 있는 것(to noeton), 혹은 의견의 대상(to doxaston)과 맘의 대상(to gnoston)으로 불리운다.<sup>25)</sup> 분할된 각 선의 부분에는 해당되는 대상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영혼의 상태(pathemata en te psyche 511d)가 있다. AD에 慢測(eikasia) DC에 意見(pistis), CE에 推論的思考(dianoia), 그리고 EB에 思惟(noesis)가 각각 해당되는 영혼의 상태이다. AD의 대상은 그림자나 거울 등에 비치는 像, DC에 해당되는 대상은 식물, 동물

21) 506d 참조.

22) 510a - 511e 참조.

23) 分明함( sapheneia )의 정도, 진리의 정도가 선분을 分割하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510a, 511d - e 참조.

24) DC의 길이와 CE의 길이가 같게 되는데 이 두부분의 길이가 같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해석가들이 머리를 써여왔다. 설득력 있고 주목할 만한 해석을 Wieland 가 그의 최근에 출간된 저술에서 제시하고 있다.

W. Wieland, “Platon und die Formen des Wissens”, Göttingen 1982, 201면 이하 참조.

25) 509d에서는 to horomenon genos 와 to nooumenon genos 라는 표현도 나온다.

등의 자연물과 여러 제작물들(*artefacta*)이며, CE와 EB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상구분이 제시되지 않고 가지적 영역, 사유대상으로 함께 표현되고 있다.<sup>26)</sup> 이 線分의 CE가 수학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며, 마지막 가장 긴 線分인 EB가 *Dialektiker*의 영혼의 상태 및 작업성격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CE의 수학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부분이다.

數學者와 관련되는 부분인 CE에 관한 플라톤의 언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 부분(CE)에서 영혼은 可視的 世界의 사물들을 模像(eikon)으로 사용한다.
- 2) 이 부분에서 영혼은 어떤 것을 놓는데(hypothenomenoi 510c), 이 놓은 것으로부터 始初(arche)으로 나아가지 않고 끝으로(epi teleuten) 나아간다.
- 3) 대표적으로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작업이 이에 해당된다.
- 4) 그들이 놓는 것들(hypothesis)<sup>27)</sup>의 예로는 짹수나 홀수, 형태들, 그리고 角의 세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 5) 그들은 이 놓아진 것이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스스로도 분명히 안다고 생각한다.
- 6) 그래서 그들은 이 놓아진 것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어떤 설명(logos)도 요구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 7) 그들은 이 놓아진 것에서 시작하여 앞뒤가 맞게(homologoumenos)<sup>28)</sup> 그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 8) 그들은 가시적 도형이나 사물들을 보조물로 사용하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나, 그들이 실제로 논의하는 대상은 그 그려진 도형이나 구체적 대상물이 아니라, 삼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이다.
- 9) 그들은 그들이 놓은 것을 놓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즉 hypothesis를 hypothesis로 생각하지 않고 출발점(arche)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이 이 놓아진 것이 진정한 출발점, 始初가 아니라 단지 놓아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 10) 그들이 다루는 대상도 진정한 시초와 연결되면 사유대상(noeton)이다.

이상에서 요약된 선분 CE에 관한 언급은 첫째 수학적 대상의 성격과 둘째로 수학자들의 작업방식과 태도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언급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수학적 대상

26) CE가 이데아의 달리 數學의 固有한 對象영역인 수학적 대상으로 생각되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연구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필자는 이 부분에 의거해서 수학적 대상을 따로 설정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최근의 논의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Guthrie, A History of Greek Philosophy vol.IV. 509면註2에서 읽을 수 있다. Wedberg의 앞의 책, 109면 이하도 참조.

27) 앞으로 이 논문에서 '놓여진 것', '놓고 나가는 것', '전제', 'hypothesis' 등으로 표현되는데, 모두 희랍어로 *ὑπόθεσις*의 번역이나 transliteration이다.

28) 이 말은 '상호합의 하면서'로 옮길 수도 있다. F. M. Cornford, 'Mathematics and Dialectic in the 'Republic VI-VII' in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ed. by R. Allen 66면 참조.

의 성격과 관련하여 먼저 수학에서 그려진 도형이나 가시적 사물들이 모상으로 사용된다 는 것과 그러나 그들의 논의의 진정한 대상은 그같은 모상들이 아니라 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등과 같은 사유대상(noeton)이며, 또한 그들의 논의대상은 진정한 시초와 함께 (meta arches 511d) 사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수학자들의 작업방식 및 태도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그들이 도형을 사용한다는 것, 둘째, 그들은 어떤 것을 놓고 나간다는 것, 세째,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놓고 나가는 것이 단지 놓여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 네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그 놓여진 것에 대해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따라서 그 놓여진 것들이 단지 놓여진 것일 뿐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것에 대해 근거제시(logon didonai)가 필요함을 그들이 알지 못하여, 마지막으로 수학자들의 작업은 이 놓여진 것의 놓여진 것이라는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진정한 始初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놓여진 것을 始初로 놓고 정합성있는 추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일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수학이 가지는 이 같은 성격은 다음에 논의되는 dialektike의 성격과 Dialektiker들의 작업에 비교해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분 EB에 관해 다음의 것들이 언급되고 있다.

- 1) 이 부분에서의 영혼의 탐구는 도형이나 감각적인 것의 도움 없이 이루어 진다.
- 2) 數學者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영혼은 어떤 것을 놓는다.
- 3) 그러나 그는 이것이 단지 놓아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數學者들처럼 이를 출발점으로 놓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진정한 始初, 놓아지지 않은 始初(anhypothetos arche 510b, 511b)에로 찾아 올라간다.
- 4) 이 始初를 영혼이 서로 따짐의 능력(he dynamis tou dialegesthai 511b)에 의해 파악한다(labein, hapesthai).
- 5) 이 始初는 모든 것들의 始初인데 이것과 더불어 모든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된다.
- 6) 上昇의 길의 끝에서 이 始初를 파악한 후 下降의 길에서도 영혼은 어떤 감각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이데아에서 시작하여 이데아를 통하여 이데아에서 끝나는 작업을 한다.

이같은 Dialektiker 작업은 먼저 그들이 수학자들과는 달리 도형이나 다른 어떤 감각적 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차적 특징이 찾아질 수 있다. 나아가 그들도 어떤 것을 놓기는 하되 그들은 이것이 놓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같은 얇때문에 진정한, 놓여지지 않은 始初를 찾아나서 그것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수학자들과 구분된다. 수학자들과 Dialektiker들 사이의 차이는 따라서 그들이 감각적 대상을 모상으로 사용하느냐의 여부와 그들이 놓고 나가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數學과 數學者들의 태도에 대한 플라톤의 否定的 判断은 이 두가지 점, 즉 수학자들이 도형과 같은 가시적인 대상을 사용하며, 또한 놓아진 것의 놓아진 성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로 압축될 수 있다.

## IV

첫번째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수학자들의 도형이나 유사한 감각물의 사용은 오늘 날 수학과 관련해서도 이 비판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 비판이 수학적 작업의 어느 부분에 향해져 있는지 하는 것 만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고대 희랍수학이 기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하학에서 그려진 도형이 사용되었고 오늘날도 유클리드기하학과 관련하여 도형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감각적 보조물을 사용함은 반드시 기하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산술의 경우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셉을 할 때 손가락이나 감각계의 사물을 임의의 단위로 취하여 셉을 하는 경우나, 나중에 세련되어 그런 감각적인 개물이 아니라 머리 속에 그려진 점과 같은 것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마찬가지 비판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플라톤 자신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듯이<sup>30)</sup> 그들이 이같은 가시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에 관해 말하기는 하나, 그들의 추리와 논증이 가해지는 진정한 대상은 사각형이나 대각선 자체들이다. 이 말은 아마도 산술의 연산이나 기하학적 논증이 타당한 것은 가지게의 대상들 즉 이데아에 관해서이지 가시적 형태들에 대해서가 아님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감각계의 도형이나 형태에 타당하지 않음을 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들이 단지 그렇게 보일 뿐 다른 관점에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려진 도형이나 기타 가시적 형태의 사용은 일부 不實한 수학자들에만 한정된 잘못된 관행이라기 보다는 수학이란 학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치못할 성격으로 파악되고 있는 듯 한데<sup>31)</sup> 바로 수학의 이같은 성격이 이 학문을 선분의 가장 윗 부분이 아니라 그 밑부분에 위치하게 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비판의 두번째 포인트는 첫번째 경우 보다 더 중요한 듯 한데 그만큼 플라톤 자신의 언급도 길고 더불어 수학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수학자들이 놓는 것 혹은 놓아진 것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히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은 희랍어의 *ὑπόθεσις*라는 말의 번역어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수학자들이 그들의 작업을 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놓고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라톤이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기수와 우수, 제반형태들, 그리고 각의 세 종류 즉 예각 직각 둔각 등이다.<sup>32)</sup>

이와 같이 수학자들이 놓는 것은 따라서 오늘날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실험과학에서의 가설(hypothesis)과는 먼저 그것이 과학에서의 가설처럼 검증 혹은 반증되어야 할 참정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따라서 다른 보다 나은 어떤 명제로 대체될 수 있

29) Wieland, 앞의 책 203면 이하에 이 부분이 뛰어나게 밝혀져 있음.

31) C. C. W. Taylor, 'Plato and the Mathematicians', Philosophical Quarterly

1967, 200면 참조. Wieland 앞의 책 207면 이하도 참조.

Hare는 다른 견해를 피력한다. R. M. Hare, 'Plato and the mathematicians' in "New Essays on Plato and Aristotle" ed. by R. Bambrough. 30면 참조.

30) 511c-d 참조

32) 510c 4 - 5 .

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연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오늘날 선분의 비유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 즉 이 놓여진 것이 삼각형이나 角 혹은 짹수와 훌수와 같은 사물을 말하느냐 혹은 그런 사물들에 대한 명제냐 하는 물음이 어떤 식으로 대답되든, 이런 형태들 또는 수들이나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명제를 놓고 나간다는 것은 수학적 작업이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며, 보다 나은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플라톤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Dialektiker*도 어떤 것을 놓고 나가기는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力學이 운동 및 운동체나 그것들의 존재를 놓고 나가며, 정치학이 공동체와 통치행위나 그것들이 존재함을 놓고 나가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수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 일반이 도대체 학문으로서 성립함에 있어 전제하는 대상영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것은 모두 놓아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여기서 수학자들의 *hypothesis* 즉 그들이 놓고 나가는 것이 삼각형, 수와 같은 사물이냐 혹은 그같은 사물들에 대한 명제냐에 관해 연구가들 사이에 긴 논쟁이 있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수학자들에 의해 놓여지는 것들이 명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이 명제가 공리(axiom)나 정의(definition)나 혹은 존재명제(existential proposition)냐에 관해 견해가 갈려 왔다.<sup>34)</sup> 사실 이 논의는 수학자체의 성격을 밝히는 일과도 전연 무관하지는 않겠으나, 보다 중요하게는 선분의 비유부분과 「국가」편 VII권에서 수학과 대비되어 그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 *dialektike*의 성격을 밝히는데 의미있기 때문에 많이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이 그의 저술들에서 이 놓아진 것을 명제의 형태로도 제시하고 명제와 관련되고 있는 사물들의 형태로도 제시하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선분의 비유 부분에서는 이 놓아진 것이 명제의 형태 아닌 기수, 우수, 형태들, 각의 종류들과 같은 사물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같은 「국가」편의 IV권이나 「파이돈」편 또는 기타 다른 대화편들에서는 대체로 명제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sup>35)</sup> 필자의 견해로는 적어도 「국가」편을 쓸 시기에는 플라톤이 이 놓아진 것에 대해 사물이나 명제냐를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앞서 제시된 두 입장에 대한 비교적 근래에 Hare와 Taylor에 의해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 V

Hare의 견해에 따르면 수학자들이 놓고 나가는 것은 명제가 아니라 *text*의 510c 4-5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기수, 우수, 삼각형, 원과 같은 여러 형태들 그리고 角의 세 종류와 같은 사물이다. 그가 이같은 견해를 취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다루는 *text*에 이같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이 해석하는 경우에 *logon didonai*라는 말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Hare는 여기서 *logon didonai*라는 말

33) Wieland 앞의 책, 209면 이하 참조.

34) 지나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에 따라 分化하여 문제를 따짐의 부적합에 대해 Mittelstrass, 앞의 책 43면 이하 참조.

35) Taylor, 앞의 논문 196면 이하 참조.

을 ‘定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logon didonai*라는 말이 定義함을 의미한다면, 이 같은 定義가 내려지는 대상은 명제가 아니라 삼각형이나 기수, 우수 같은 사물이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제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Hare는 수학에서 定義를 정확히 하지 않고 논증하는 예로 「메논」편의 소크라테스와 童僕 사이의 대화<sup>36)</sup>를 들고 있다. 이 대화에서 그들은 사각형이나 대각선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고 단지 땅위에 그려진 그림에 의존하여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이 같은 Hare의 견해에 따르면 수학자들의不足함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은 수학 및 수학자들一般에 대해 향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메논」편에 제시된 바와 같은 不實한 수학자와 수학적 논증과정에 향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例컨대 유클리드 기하학 체계에서와 같이 이 같은 부분이 보완 완비된다면 수학 및 수학자들은 플라톤의 비판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sup>37)</sup> 사물들에 대한 통찰에 근거하여 定義를 내리는 작업이 곧 Dialektiker들의 作業이 되며, 그들의 定義對象이 바로 이데아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이상에서 요약된 Hare의 견해는 *logon didonai*가 정의를 내림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Hare의 입장에 반대하여 수학자들이 놓고 나가는 것이 명제라고 주장하는 Taylor는 바로 이 점, 즉 당시의 수학자들이 定義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논증을 수행했다는 Hare의 논거를 현존하는 당시의 문헌에 의거하여 비판하면서 그의 논의를 시작한다.<sup>39)</sup> Taylor는 우선 Hare의 주장이當時 수학자들의 作業에 대한史料上의 공고한 기반이 없으며 따라서 그별 개연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그렇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당시 수학의 작업모습의 예로 제시된 「메논」편의 기하학에 관한 대화는 그것이 본격적인 수학적 증명을 위한 것이기 보다 想起說을 증명하기 위한 것 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크라테스나 童僕이 온전한 기하학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학적 작업의 모범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이 Taylor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존하는當時의 문헌들에 근거하여 당시 수학자들이 이미 定義를 내리는 작업을 했을 뿐 아니라 定義가 논증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학자들이 놓고 나가는 것이 Hare가 주장하듯 삼각형, 기수, 우수 등과 같은 사물이 아니라 ‘기수가 무엇이다’라든지 ‘삼각형이 있다’와 같은 그 사물들에 대한 명제라는 것이 Taylor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플라톤의 text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 hypothesis는 명제형태이며 명제형태가 아닌 소수의 경우도 명제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이 hypothesis에 logos를 제시한다는 것은 그 명제를 보다 높은 명제로부터 증명함(give a proof)<sup>40)</sup>을 의미한다.

증명한다는 것은 그 명제를 그것 보다 논리적으로先行하는 명제에서 도출함을 뜻한다. 수학자들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은 Taylor에 의하면, 그들이例컨대 ‘삼각형은  $x$ 이다’ 혹은 ‘삼각형이 있다’와 같은 명제를 보다 높은 원리로부터 연역, 증명하지 않는다는는데

36) Men. 82aff, Hare, 앞의 논문 25면 이하 참조.

37) Hare, 앞의 논문 30면 이하 참조. 이 논문의註 31 참조.

38) Hare, 앞의 논문 24면, 32면 참조.

39) Taylor, 앞의 논문 194면 이하 참조.

40) Taylor, \* 197면 참조.

향해져 있다. 그가 그리는 *dialekto* 는 성격상 수학과 같이 연역적이나, 수학과 다른 점은 그것이 모든 명제들을 역시 명제형태의 최고원리로부터 도출해 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sup>41)</sup>

이상에 요약된 두 입장은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루는 「국가」편 VI권의 경우 *text*에 수학자들이 놓고 나가는 것이 기수 우수, 여러 형태들과 같이 사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다루는 귀절과 관련해서는 놓여진 것이 명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제거하기 곤란한 난점을 제기한다. 그러나 Hare 같은 이의 주장이 가지는 難點들은 사실 Taylor의 입론에 의해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두 입장이 모두 *logon didonai* 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의 대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Taylor가 제시한 논거 이외에도 Hare의 견해는 이 말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Hare가 주장하듯이 *logon didonai* 가 ‘定義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말은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정의제시를 넘어서 ‘이유를 대다’ ‘근거를 제시한다’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쓰여질 수 있고 쓰이고 있다. Taylor는 *logon didonai* 가 보다 높은 명제로부터 ‘삼각형이 무엇이다’ 라든지 ‘삼각형이 있다’와 같은 삼각형의 定義나 存在命題를 도출해 냄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이같은 定義나 또는 存在명제가 어떤 종류의 보다 높은 명제로부터 유역될 수 있는지 그의 굳이 분명히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 따르면 좋은 자체에 관련되는 최고원리도 명제의 형태가 되겠는데 그 명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 과연 그것이 명제의 형태가 될지 조차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sup>42)</sup> 양 입장의 논란점은 성격상 當時의 수학의 발전정도와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요하는 史的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플라톤의 학문이론의 전체적인 윤곽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아론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결정적이고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기란 저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당시 수학의 발전 정도와 실제 작업을 평가할 문헌들이 단편적 형태로 밖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못하고, 이같은 단편적인 사료에 입각하여 「국가」편 VI권이 써여질 당시의 수학의 진전정도를 재구성하고 *text* 귀절이 의미하는 바를 이 재구성된 사료에 따라 정확히 해석하는 일은 해결하기 거의 불가능한, 난점이 따르는 일로 보인다.<sup>43)</sup> 또한 플라톤의 학문이론이라는것 자체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국가」편의 VI

41) Taylor, 앞의 논문 197면 이하 참조.

42) 선분의 비유와 VII권에서 플라톤은 이 원리에 도달함을 *haptetai, hapsamenos, idein* 등의 접촉이나 시각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즉 최초의 시초, 최고의 원리는 이에 따르면 직관의 대상이다.

Mittelstrass, 앞의 책 43면 이하 참조.

43) 「국가」편이 써어진 시기 자체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으며 (태개 BC 370년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현존하는 수학관계 문헌들의 저술년대도 정확하는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주⑥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편이 먼저 영향을 미치고 받았는지를 정확히 결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당시 사료에 의거하는 경우도 추측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권과 VII권에서 아직 모호한 채로 윤곽지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란 기껏해야 전체적 윤곽에 대한 추측이상의 것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접근할 때 이같은 제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text에 읽어 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듈다.

이같은 觀角아래서 우리가 선분의 비유 내에 나타난 수학에 관한 언급들로부터 일차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그의 언급이 수학자의 作業方式과 態度에 주로 향해지고 있다는 點이다. 圖形이나 可視的 事物을 사용한다는 점 이외에 수학자들이 어떤 것을 전제한다, 어떤 것을 놓고 나간다는 사실이 지적되는데, 사실 어떤 것을 놓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Dialektiker도 마찬가지이다. 수학자와 Dilalektiker의 차이는 Dialektiker가 이 놓여진 것이 단지 놓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유념하는데 대해 수학자들은 그것을 모르며 따라서 유념하지 않는다는게 있다. 놓여진 것이 단지 놓여진 것임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냉는가? 놓여진 것이 놓여진 것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 덜 분명하며 (asaphes, ouk enarges) 따라서 그것이 더 밝혀지고 분명해져야 하며, 그것에 logos가 주어져야 함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놓여진 것은 단지 놓여진 것일 뿐이요, 따라서 이 놓여진 것의 성격이 제거되어야 (tas hypotheseis anairousa 537 c) 함을 안다는 말이다. 반대로 놓여진 것이 놓여진 것임을 모르는 이는 바로 그것이 놓여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은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수미일관한 논증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놓여진 것이 놓여진 것임을 모른다고 해서 이 논증의 타당성에 결함이 생긴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이 수학자들의 이같은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학문의 영역, 수학의 영역에 있어 타당한 추론 이외에 보다 중요한 어떤것이 더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뜻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수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보다 중요한 것-그것이 어떤 것인 간에-이 있음을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놓고 나가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다고 (panti paneron 510d) 생각하며,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다고 (hos eidotes 510c) 생각한다. 수학자들의 이같은 태도는 그들이 놓은 것이 아직 썩 분명하지 못하며 거기에 대해 더 logos가 요구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음을 뜻한다.

사실 이같은 二重的 모름의 구조는 선분의 각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적 계기이며 또한 동굴의 비유에 제시된 囚人の 上昇의 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sup>44)</sup> 앞서 제시된 선분의 AC에 해당하는 可視界에서 머물고 있는 영혼은 可知的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다시 선분 AD와 DC사이에서도 성립하며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CE와 ED의 관계에서도 성립한다. 동굴의 비유에서도 이 사실은 대단히 의미있는 解釋의 계기를 이룬다. 목과 발목에 사슬이 묶여 오로지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囚人の 경우, 그의 영혼의 상태를 규정하는 특징은 그가 그림자의 세계만을 알

44) Wieland의 뛰어난 해석을 참조할 것. 앞의 책, 201 - 223면 .

고 그것을 實在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림자만을 보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이 단지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은 그가 얼굴을 돌려 그림자의 實物인 동굴 內 城壁 위의 여러 模型들을 볼 때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原物인 各 模型들이 다시 동굴 밖의 세계의 事物들의 模像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동굴 밖으로의 고통스러운 여행을 해 본 사람에게만 알려 질 수 있다. 바로 이같은 二重的 모름의 구조가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수학자와 *Dialektiker*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학자들은 놓여진 것이 놓여진 것인 줄 모르고 이것들에 관해 진정한 출발점에 이름에 의해 놓여짐의 성격이 제거되어야 하며,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한다. VII권에서 플라톤은 이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실재에 관해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sup>45)</sup> 꿈꾸는 사람들의 상태를 특징짓는 것은 그들이 꿈 속에 나타나는 여러 表象을 原物로 여긴다는 사실과 함께 스스로 꿈꾸고 있음을 모른다는 점이다. 수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것은 그들이 놓고 나가는 것이 틀렸다든지 그래서 틀리지 않은 것으로 대치되어야 한다든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여진 것이 놓여진 것임을 모르며, 더 나아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出發點으로 나가야 함을 모른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학자들의 태도에 대한 이같은 플라톤의 비판은 *Dialektiker*들의 작업의 성격이 분명해질 때에야 보다 의미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Dialektiker*에 의해 놓여진 것들이 놓여짐의 성격을 벗어 버리고 보다 분명해 진다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을 뜻하는가? Text에 의거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답의 실마리로 먼저 놓여진 것이 놓여진 것임을 아는 이들, 즉 *Dialektiker*들은 이것을 始初로 놓지 않고 진정한 시초로 찾아 올라 간다는 사실이 주목될 수 있다. 이 진정한 始初는 플라톤 자신의 언어로는 無前提이 始初, 혹은 놓여지지 않은 始初 (*anhypothetos arche*)라고 이야기 된다. 놓여지지 않은 이라는 수식어는 진정한 시초란 놓임의 성격이 없음을 뜻한다. 따라서 *Dialektiker*들이 놓여진 것이 놓여진 것임을 알고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바로 이 놓여진 것에서 놓여짐의 성격이 제거되어야 함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성격의 제거는 그 자신은 놓여지지 않은 어떤 것에 이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합축되어 있다.

이같은 놓여지지 않은 시초가 좋음 자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국가」편의 VII권에서 플라톤 자신이 이 사실을 비교적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따짐 (*dialegesthai*)에 의해 어떤 지각의 도움도 없이 *logos*를 통해서만 각각의 것들이 그것인 바의 것 자체 (*auto ho estin hekaston*)에로 육박한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유 자체에 의해 좋음 자체를 파악할 (*labe*)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유대상의 목표에 이르게 될 결세”

이 인용문에서 모든 것들의 시초가 좋음 자체임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 이 좋

45) 533b, 534c, 476 참조.

음 자체에 도달함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명시적으로 이야기 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것인 바의 것 자체”이다. 그리고 이것은 긴 상호따짐 끝에 직각적 사유(noesis)에 의해 주어진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사람은 각각의 사물들의 logos는 모든 것들이 그것인 바의 것 즉 어떤 사물의 ‘무엇임’에 대한 것임을 인다. 534b에서 플라톤은 이것을 사물들의 ousia에 대한 logos(logos tes ousias)라고 말하고 있다. 이 logos tes ousias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定義’를 의미하는 專問用語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Hare가 생각하듯 좁은 의미에서의 定義함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logos를 맨다함은 여기서 어떤 것의 어떤 것임을 제시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규정되는지 이유를 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따라서 단순히 이미 주어져 있는 정의를 언어로 다시 定式化하는 일이거나 그것을 자신의 증명의 첫머리에 놓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의되고 있는 것이 그같이 정의되는 이유(logos)에 대한 통찰이 없이 단순히 언어화된 定義를 제시한다고 해도 그는 얼마든지 문제되고 있는 사물의 가정적 성격을 이해치 못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dialectical 하지 않을 수 있다. Dialektiker가 어떤 것에 관해 요구되는 분명함을 가진다는 것은 곧 어떤 것의 어떤 것임에 대한 洞察(noesis)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경우 그는 그 사물을 꿈꾸는 상태에서 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과 연관하여 우리는 놓여진 것에 대해 그것이 명제냐 혹은 사물느냐의 選言肢를 놓고 따지는 일이 적어도 비판되고 있는 수학自體의 性格에 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학자들의 태도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은 그들이 놓고 나가는 hypothesis가 Hare의 주장처럼 사물이든 Taylor 같은 이의 주장처럼 명제이든 관계없이 타당하다. 사실 놓아진 것이 사물이거나 명제나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플라톤이 이것을 위의 양 경우 모두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어도 그에게 있어 이 놓아진 것을 兩者중의 어느 하나로 確定해야 할 필요가 切實하지 않았거나, 절실히 의식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플라톤의 수학자 비판은 사물이나 명제 여부에 관계없이 수학에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두 입장의 차이는 logon didonai의 의미가 정의를 내리고 연역하는 것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생각처럼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 Hare처럼 삼각형과 같은 사물이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놓여지는 것은 ‘삼각형이 무엇이다’ 라든지 또는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함께 놓여진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그리고 Taylor처럼 놓여지는 것이 ‘삼각형이 무엇이다’ 라든지 ‘삼각형이 있다’와 같은 명제의 경우에도 플라톤에서 문제되는 것은 진정한 삼각형의 삼각형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洞察이라면 이 통찰은 사물로서의 이데아와 관련 아래 서만 의미 있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46) Hare 자신도 그의 논문 23면에서 비슷한 논지의 말을 하고 있다.

## VI

이제 우리는 *dialektike*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계제에 와 있다. 플라톤이 가장 높은 단계의 학문으로 규정한 이 학문은 무엇을 어떻게 '다루며' 왜 학문의 頂上이라고 이야기 되는가? *logon didonai* 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모든 암과 존재의 시초라고 하는 좋은 이데아란 어떤 것인가? 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모든 것들의 암과 존재의 근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 추구되어야 한다. 數學의 性格에 대한 규명도 이 *dialektike*의 전모가 드러날 때 보다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dialektike*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은 체계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플라톤 스스로도 아직 세부적이고 분명한 모습을 그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VI권과 VII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그것이 대체로 어떤 성격의 것인지 개요는 그려낼 수 있다. 이 문제들은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플라톤과 수학'에 대한 계속되는 작업에서는 수학적 대상(*mathematica*)의 존재여부와 그것의 성격, 이데아와의 관계, 그리고 현상세계와의 관계등이 보다 자세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어 진 수학에 대한 플라톤의 언급에 기반하여 우리는 그가 수학이 가지는 연역적, 정합적 성격을 잘 알고 있었으나 바로 그 점에만 執着함을 수학자들의 短點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